

광주시 장년층 인생2막 설계 지원 호응

지난해 개관 '빛고을50+센터'
'노후준비 컨설팅, 일·여가·교육'
1만여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온라인 서비스 '50+포털'도 개통

광주시가 장년층의 인생 2막 생애 설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강화해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장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50+포털(https://www.gj50plus.or.kr)'을 개통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오프라인에서 장년층 생애설계를 종합 지원하는 '빛고을50+센터'를 개관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통으로 장년층의 인생 2막 생애설계 지원서비스를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자유롭게 온·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동구 학동에 개관한 '빛고을50+센터(이용 문의 062-228-5050)'는 회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장년층 개인의 경력과 관심사에 맞는 노후준비 컨설팅, 일·여가·교육 등 1만여건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만족도 등이 매우 높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개통한 온라인 '50+포털'을 통해 일자리·교육·여가 등 장년세대를 지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관련 정보가 집적·연계될 수 있도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고

용복지+센터, 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하고, 총 25개 기관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들어 50+세대에게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할 학습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빛고을50+일자리사업' 확대, '50+다가지 드림사업' 신설 등 장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취업코칭, 창업·재취업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은퇴나 노화로 큰 변화를 겪는 장년세대가 길어진 노후를 활기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성심껏 지원하겠다"면서 "많은 중장년 세대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세계김치축제 6만여명 찾았다

직거래장터 5억원 상당 판매고
'김치 디너쇼' '김치 휴게소' 인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열린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호평 속에 막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김치 음식과 문화를 바꾸자'를 주제로 20~23일 광주김치타운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광주 세계 김치 축제에는 6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상황 속에 배추김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 직거래장터 등 판매 행사에서는 준비 물량이 완판되며 5억원(55t) 상당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의견 위주 개막식을 대신한

'김치 디너쇼', 유쾌한 해설과 함께하는 시식 행사 '케미진 김치 식탁', '김치 휴게소' 등이 인기를 얻었다. 김치 축제에 이어 다음 달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는 '빛고을 사랑 나눔 김장대전'이 열린다. 2014년부터 열린 김장대전은 싼값에 믿을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김장을 할 수 있는 행사다. 세계김치연구소에서 개발한 김장 공동레시피와 신안 천일염, 함평 고춧가루, 여수 멸치액젓을 공동구매해 만든 김치 재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내년 제30회 광주세계김치축제는 김치와 관련된 자원과 인력을 발굴해 김치축제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 광주시 특·광역시중 1위 사망자수 감소 등 높은 점수

광주시는 "국도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특·광역시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는 국도교통부에서 교통안전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단위 평가로, 전년도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순위를 매긴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49명에서 63명으로 22.2% 감소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대비 4단계 상승한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교통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운영하고 교통안전시책을 공유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또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노인·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 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줄이기 등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청렴 위인 사적지 탐방' 교육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 40여명과 시민기자단이 함께하는 '청렴 위인 사적지 탐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장성군 일원에서 청렴 정신의 상징인 박수량 백비, 송흥의 관수정 일원과 필암서원 등을 탐방하고 청렴 교육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 홈페이지 한글 도메인 다음달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

광주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한글 도메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글 도메인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순 한글 인터넷 접속 주소로 정책홍보 키워드와 홈페이지 주소를 일치시킬 수 있다. 'www.gwangju.go.kr'인 광주시 홈페이지 주소를 '광주광역시정.kr' 또는 '광주광역시청.한국'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대표 홈페이지와 '광주온', '왔소' 등 3개 홈페이지에 한글 도메인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등록 수수료와 기술을 지원한다. 이영동 광주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 수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희롱 없는 어르신 돌봄일터 함께 만들어요

광주시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광주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편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 유형을 보여주고, 이를 어길 경우 돌봄서비스 중단과 법적 처벌, 벌금부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작 영상은 광주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하

고, 광주시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11분 40초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주제별(언어·육체·시각적)로 나눠진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한다. 앞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반기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에서 생활지원사에게 동영상을 공개했으며,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성희롱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송숙란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영상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시민의 많은 시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총력

11월1일~12월15일 조심기간

대책본부 가동·홍보활동 강화

광주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9건은 봄철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여건 악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산불 지상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등 70명을 선발하고, 진화차, 등산용품,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해 초동진화 태세를 모두 갖춘 상태다. 또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등산과 금당산 등 도심 주요 산 8곳에 설치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점검·정비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 72곳과 주요 등산로, 논·밭두렁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또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양항공관리소 3대)와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법경찰관과 관할 경찰 등과 협력해 산불을 조사하고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튼튼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